

르네상스 수도원 체르토사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체르토사 디 파비아의 셀 공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Renaissance Monastery Certosa

- Based on the Cell Space in Certosa di Pavia -

임종엽* / Lim, Jong-Yup

Abstract

Certosa, a representative Monastic Architecture of Renaissance era, has been well preserved. And it has worked as a symbol of the space form & style revealed by monad, sell, arcade and court, which are characteristic of a monastery.

A court is divided into large court and small one, and it connects each units and each sells through the annex with clarifying each space identities.

And arcade and pillar is not only to derive a unitary space from entire space, but also to try openness and extension applying a different height in spite of physical closure of style.

Especially planned by monad and cell, the routine space of monks, a structure of rational space is a yardstick of moderation and frugality, showing affluent space which occupy essential areas without extra space.

And the space appears self-sufficiency, honest poverty, and affluence with order and eternity based on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Cartusio order in composition and plan of the space.

Keeping strong linking with entire sells in the monastery, Each sell symbolizes entire sells, and the inverse is the same. And it is the universe advocating eternity and it is also a small city which provides the monks with accurate modules and scales in the very recluse space.

키워드 : 수도원, 체르토사, 셀, 모나드, 중정, 아케이드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카톨릭 그리스도교의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세워진 수도원 건축은 6세기에 처음 그 형식적 구성을 시작하였다.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수도원은 여타의 각론 유형과 비교하여도 가장 보수적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전통적인 관습의 계보 속에서도 특히 근대 건축운동 이후는 많은 실험적인 공간의 변형이 시도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인식적 접근을 통해 다양성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와 유형이란 근본적인 원형에 기초를 두는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타진과 보편성의 설득을 위해서는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종교건축은 시대의 정신이며 생활의 지표이기도 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나 루이스 칸(L. I. Khan)과 같은 근대건축의 거장들에게 전형적인 수도원의 구성은 도시를 읽고 해석함에는 물론 새로운 공간을 제안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되어졌다. 특히 새로운 집합 주거 모델이나 기숙사 등을 위해서 수도원의 평면 공간 유형은 절대적인 열쇠였으며, 가장 인용하기 좋아하는 텍스트 중 하나였다. 수도자들의 생활공간이 대개 외부와는 격리된 은둔자의 공간이어서 그 원형을 읽어내기에 폐쇄적인 흐름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작은 우주이자 전체로서의 세계였기에 그 함축성과 도구적 방법론은 현대의 공간디자인에 다양하게 응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원 공간의 보다 기초적이면서 원형적인 연구를 통해 공간 분석과 그 내재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전형적 수도원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접근하지만 연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적인 원칙의 보편성이 완성된 시기인 르네상스에 건설된 대표적인 수도원 건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수도원 건축의 대표성은 지휘마다 차이가 있고, 다소 변형된 것도 있으나 르네상스는 로마네스크와 고딕이라는 신앙적인 절정기를 거치면서 공간적으로 많은 것에서 원칙이 세워지고 정리된 상태이다. 때문에 르네상스 수도원에서 나타나는 그 공통적인 원형성과 유형적인 측면은 이전의 전체성과 원칙성을 가장 잘 적용하여 건설되었기에 그 내용적 의미와 기능적 표현에서도 매우 정제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체르토사 디 파비아(Certosa di Pavia)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유럽에서는 그 규모나 형식 모두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의 진행을 집중하기 위해 광범위한 도시성의 해석과 건축공간의 표현은 축소하고, 공간의 배치와 기능, 중정 및 아케이드 등, 유형의 규칙 및 모델, 그리고 수도원의 특징인 모나드(Monad)와 셀(cell), 건설구조의 특징 등을 포함하여 공간구성의 상징과 의미를 정리한다.

2. 수도원의 일상, 구성, 유형

2.1. 수도원의 생활 및 정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수도원 생활이란 바로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인 것이다. 수도원이란 수도사나 수녀들이 기거하는 집으로(Monastery/Convent) 즉 수도회 회원들의 생활 본거지를 말하며 초기의 수도원은 공동체적인 성격보다는 은둔적인 성격이 강해 독립적이거나 극히 소수가 모여 생활하였다. 때문에 초기에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 암자나 동굴, 초막이나 오두막을 지어 은거하



<그림 1> 수도원 소중정 전경

면서 기도와 명상을 하고 금식하면서 고립된 생을 살았다. 시몬 스틸라이(Simon Stilla)라는 사도승은 36년간 기둥 꼭대기에 살면서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하기도 했다. 수도회의 종류에 따라 수도원의 양식은 달라진다. 기본적인 생활방식은 세속을 피해있는 장소적 특징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방식이었으며 넓은 땅을 가지고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였다. 공간의 분배 방식은 성당을 중심으로 안뜰을 끼고 사는 집이 방형으로 줄지어있고,

안뜰을 따라 회랑이라는 유형적 공간 형식은 중심을 향한 관상과 사색에 적당한 공간 배치가 주를 이룬다. 4세기에서 5세기로 접어들면서 수도원의 제도가 보편화되어갔으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및 시리아에 특히 많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독립적으로 수도하는 은자들과 수도사들의 암자가 군집을 이루어 형성된 격유스리온 수도원 공동체 즉 시 라우라(A Laura)가 기본 형식이었고 파코미우스 수도원같이 고도로 조직된 집단의 수도사들이 있었다. 동방의 정교회는 은수사적 수도원이나 카말둘리회 등은 각자가 조그만 독방을 지니고 있어도 성당과 식당은 공동의 사용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의 수도원은 도시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제도 자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 옛날과 같은 넓은 수도원은 드물게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원이고 베네딕트가 만든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구성은 그 형식면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주된 생활 형식은 기도와 노동 규범을 중시하였으며 중앙에 대한 복종이 매우 엄격하였다. 이런 수도원의 생활이 중세에 접어들면서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한 교회에 수도원 운동이 일기도 한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청빈한 정신이며, 순결과 순종, 순명의 정신¹⁾을 들 수 있다.

2.2. 수도회의 일반적 구성과 카르투스오회

수도회의 형성은 그리스도를 보다 철저히 따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수도 생활의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수도생활은 은수자와 독수자의 전통을 이으며 수도자는 우리말로 수도승이라고 하는데 수도승, 즉 모나쿠스(Monachus)라는 말은 본래 불교적 용어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자(Religious)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며 승려적 생활전통에 따르는



<그림 2> 본당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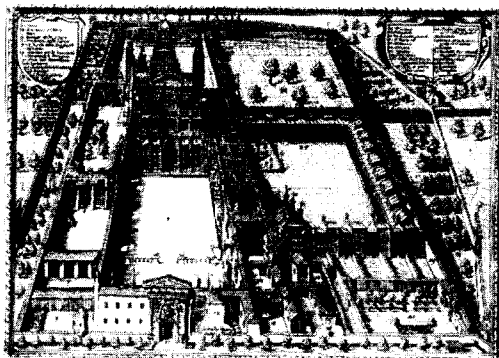
수도회들에 속한 수도자를 따로 지칭할 때 그리스도교에서도 사용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인 'Monos'(혼자)에서 유래되었으며 독신이란 뜻이 내포되어있다.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은수자(Hermit, Eremita)나 독수자(Anchorite, Anachorita)를 가리켰는데

1)이 정신에 따른 대표적인 지도자로는 성 베네딕투스(480-543), 성 베르나르드(1091-1130), 성 부르노(1035-1101), 성 프란치스(1182-1226), 그리고 루터에게 영향을 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7) 등이 있다.

접차 그 의미와 내용이 발달하여 후에는 회수도승(Cenobite, Cenobita)으로 연결된다. 오늘날 수도승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는 까말돌리회, 실베스트로회, 발롬브로사회, 올리베파노회 등과 베네딕트회 연합에 속하는 수도사들로 시토회, 트라피스트회, 그리고 카르투스시회가 있다.²⁾ 특히 카르투스시회는 성인 브루노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 성 휴고의 지도적 종교생활을 바탕으로 타 수도회와 비교하여 보다 은둔적 생활의 전통에 더 가깝다.

2.3. 수도원 기본 유형의 공간적 특징

공식적인 형식의 수도원이 이루어진 것은 6세기 베네딕투스회 수도원이 이탈리아의 몬테카지노(Monte casino)에 최초의 대수도원을 건립된 이래 수도원 활동의 전형적인 모델이 시작되었다. 수도원은 때때로 회칙을 개혁하면서 카롤링거 왕조 때인 9세기에는 스위스의 장크트 길겐에 훗날 수도원의 모범이 되는 대 건축을 건조하였다. 설계의 중심은 안뜰을 열주로 둘러싼 회랑 건축인데, 한편은 성당에 접하게 되어있고 다른 세면에는 식당, 주방, 집회실, 공동작업실, 등을 배치하고 그 위층에는 수도실, 침실, 객실 등을 배치하는 형식이였다. 특히 중세 초기부터 로마네스크시대에 걸쳐 수도원은 종교 뿐 만 아니라 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수도원 안에서는 사본(寫本)을 비롯하여 회화와 공예품 등도 제작하였기 때문에 스크립툼(寫字室)이나 기타의 작업장도 여기에 부속하여 세워진 것이 많았다. 유럽에서는 베네딕투스회에서 파생한 클뤼니파 수도원이 10세기 이후를, 그리고 시트파 수도원이 12세기 이후로부터 각지에 수도원을 세웠다. 전자의 클뤼니파 수도원은 호사스러운 건축으로 프랑스의 고딕건축에 영향을 미치고, 후자의 시트파 수도원은 엄격하고 소박한 건축으로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의 고딕건축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림 3> 벨트라미(Beltrami)의 복원도

3. 체르토사 디 파비아(Certosa di Pavia)의 지역적 특징

3.1. 파비아의 지역적 특징 및 역사성

체르토사가 위치한 파비아(Pavia)는 북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남서쪽으로 약 36km 떨어진 곳 <그림 4> 파비아 전경에 위치한 인구 약 7만 6천의 도시이다. 이 곳은 티치노(Ticino) 강을 끼고 있으며 파비아 황금기의 시기에는 롬바르디아(Lombardia)의 수도이기도 하였다. 고대에는 티키눔이라 불리었고 774년 이후에 카롤링거 왕조의 통치거점이기도 하였다. 1359년 밀라노에



<그림 4> 파비아 전경

그 지위를 빼앗긴 후 1361년부터는 비스콘티(Visconti) 가문의 지배 하에 있었다. 그 뒤 프랑스, 오스트리아, 에스파냐의 지배를 거쳐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었다. 이 곳은 샤를마뉴(Charlemagne)와 프레데릭 바르바로사(Barbarosa)의 대관식이 거행된 것 외에도 유럽 내의 교통 중심지 역할로 그 지명도가 매우 높다.³⁾ 이 도시에는 중세에 세워진 시청과 함께 브롤레토(Brolletto) 이외에도 1488년도에 시작해서 아마테오(Amadeo),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그리고 브라만테(Bramante)가 관여한 주 성당 두오모(Duomo)가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 규모로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크며 역사적 가치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⁴⁾



<그림 5> 파비아 지역 고지도

3.2. 체르토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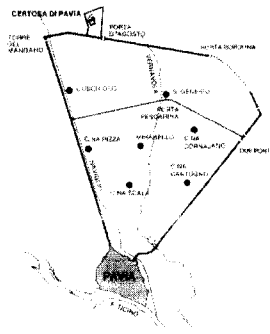
도시 파비아로부터 약 8km 북쪽에 위치한 체르토사는 카르투스시회의 수도원을 말한다. 이 수도원 건축은 롬바르디아 지방에 있는 수도원 건축으로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건축의 영역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우아하게 장식된 건물의 정면을 지닌 이 수도원이 그 건설을 마치는 데까지 약 200년이 소요되면서 밀라노의 지배자인 지안 갈레아조 비스콘티(Gian Galeazzo Visconti)에게 바쳐진 기념물이다. 그는 1397년에 당시까지는

3) Lucio Gambi e Mania Cuistina Gozzoli, Le città nella storia d'Italia Milano, 1989, Editori Laterza, pp.55-60

4) John Fitzhugh Millar, Classical Architecture in Renaissance Europe 1419~1585, 1987, Thirteen Colonies Press, pp.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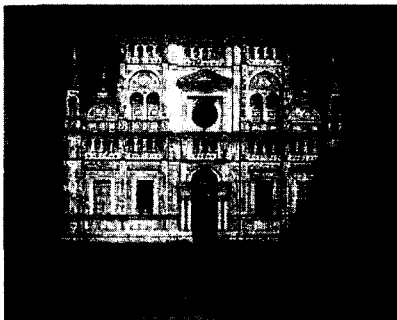
2) Conoscere L'Italia Lombardia III, 1990, Istituto Geografico De Agostini, pp.7-11

이루어진 적인 없었던 대규모의 복합단지를 생각하며 이 땅을 직접 고르고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 장소는 밀라노(Milano)와 제노바(Genova)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기도하다. 그가 요절하기까지 그는 이탈리아의 왕이 되고자하는 야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성품함은 규모 외에도 15세기 최고의 장인인 조반니 안토니오 아마데오(Giovanni



<그림 6> 체르토사 위치도

Antonio Amadeo)가 제작하였다. 수도원의 공간적 배치와 형식에 있어서는 이미 르네상스의 역사가이자 건축가인 바사리(G. Vassari)가 극찬한 바 있으며 브로세스(C. De Brosses)는 1740년 수도원 건축의 형식을 순례하면서 남긴 기록에서 '기존의 수도원건축 중에서 가장 빼어난 수작'으로 지칭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후대에는르 코르뷔지에도 두 차례의 이탈리아 여행에서 빼놓지 않고 방문하고 있으며 이때 남긴 여러 장의 스케치에서 그의 수도원 건축 공간 및 주거 개념에서도 인용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스스로도 개인적 공간과 대중적 공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공간의 모델로 체르토사를 사용하고 있다.⁵⁾



<그림 7> 본당 전면

3.3. 제한된 영역과 확대된 도시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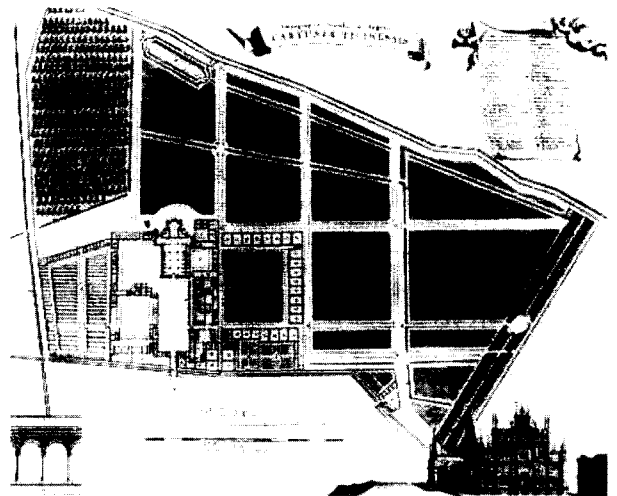
대규모 복합단지로 구상된 체르토사에는 수도사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도시로부터 격리된 공간이기는 하나 대규모의 곡물창고를 비롯해 수도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이 빠짐없이 적용되었으며 때때로 방문하는 외부 인들을 위해 호텔(당시의 초대소)은 물론 병원과 심지어는 이발소까지 별도로 계획되어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성하며 총체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1460년경에 필라레테(Filarete)는 당시 진행 중이던 이상도시 계획안 스포르진다(Sforzinda)를 위해 이곳 체르토사를 인용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곳은 주변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완전체에 가까운 마스터플랜을 지니고 있다. 영역을

나누고 있는 벽들은 방목과 사냥 그리고 자생적 생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있으며.. -중략- 교회공간을 더욱 고립시키는 구조로 수도승들의 생활은 더욱 순결한 아름다움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표현했고, 그의 제자인 마르티니(Francesco di Giorgio Martini)도 1480년에 수도원 건축의 유형을 정리하면서 도시로부터 격리된 그림자나 또 다른 도시적 구조를 형성하는 탑과 높은 벽, 그리고 방형의 특성을 살린 체르토사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수도원의 이상인 영원성과 평등성 그리고 통일성이 공존하는 자치적 공간배치로 그 기본적인 구성은 방형이며, 로지아를 기본으로 하는 중정형으로 이루어졌다.⁶⁾

4. 체르토사 디 파비아(Certosa di Pavia)의 공간 구성

4.1. 공간배치와 기능

동양적 전통에 따른 작은 수도원으로 베네딕트 수도원 유형과는 다르게 카르투지오회의 수도원은 독특한 유기적 유형을



<그림 8> 18세기 마스터 플랜

지니고 있다. 작은 방들로 이루어진 긴 선형성으로의 대규모 중정은 수도사들의 중심된 이상을 담고 있다. 이런 건축의 공간구조는 은둔자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형제애의 나눔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원의 몸인 교회의 측면부인 남쪽 트랜sept(transsept)를 벽면으로 이용하여 작은 중정이 감싸고 있으며 그 서쪽 부분에는 형제들을 위한 보조적인 부대시설인 부엌, 창고, 등이 있으며 남쪽에는 진료소와 이발소가 있고, 동쪽에는 교구사무실과 제복실 그리고 교구회의실이 배치되어 있다. 그 외의 몇몇 공간들은 농업과 그 외의 생산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들이 자리한다. 그리고 주 출입구의 왼쪽 부

5)Remo Dorigatti, Certosa di Pavia, 1995 Segep Editrice, Genova, pp.100-101

6)Pepi Merisio, Carlo Bo, Piazza D'Italia, 1982 Silvana Editoriale, pp.30-35

분에는 공국의 왕이 머무는 장소로 일종의 호텔 성격을 담고 있다. 수도원 전체는 분리된 세계로 자족적이며 철저한 계율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근면하게 일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움직인다. 때문에 공간의 배치와 구성의 조직 역시 이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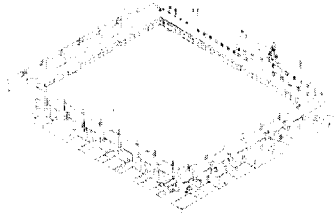
4.2. 중정과 아케이드

수도원 구성의 실질적인 중심인 대 중정 공간은 작은 셀(cell)들로 형성된 유니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규모는 가로 세로가 102m x 120m인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다.⁷⁾

남 측면은 수도원시설의 부속공간들과 맞대고 있으며 나머지 세 개의 면은 작은 유니트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각의 셀을 연결시키는 아케이드와 열주는 중정의 전체 공간을 하나의 단일체로 형성시키는 주된 장치가 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유형의 타입은 의도적으로 단순한 정형을 통해 이전에 지니던 전통적인 유형의 기본형을 따르고 있다.

대 중정을 이루는 각각의 면은 방위개념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부대시설을 향한 면을 제외한 각각의 3면에는 8개의 셀이 배치되어 총 24개의 유니트가 배치된다. 여기서 제시된 수는 그리스도와 12사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반영하여 그에 따라 2배수 혹은 3배수의 방식으로 증식되며 수도원 건축의 규칙을 정리하며 하나의 모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면에 배치된 각각의 유니트는 그 규모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동측과 남측에 위치한 것은 15m x 21m 이고 동측과 남측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21m x 2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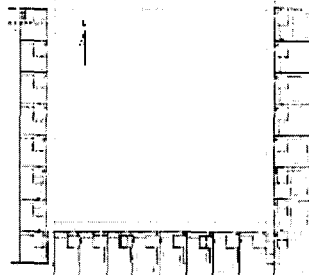
로 정방형이며 서측에 면한 유니트는 15m x 15m의 유니트로 구성된다. 또한 아케이드는 동측과 서측 면에 28개씩, 북측에 34개 그리고 남측에 33개가 배치되어있다. 서구에서 표현되는 연속된 아케이드의 성격은 외부에 대한 경계를 강화



<그림 9> 대중정 입체도



<그림 10> 아케이드 전경



<그림 11> 유니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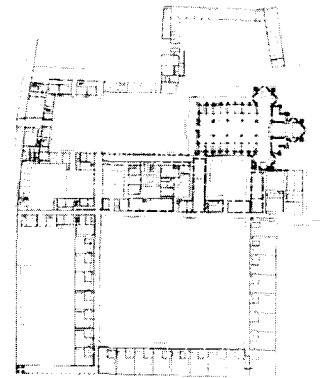
7)Remo Dorigatti, op. cit., pp.22-23

시키면서 동시에 내부로 향한 개구부의 방향성을 강조하게 되며 나아가 주변 농경지의 기초적인 기하학 모듈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도 포함되어있다. 대 중정으로부터 북쪽으로 연결된 작은 중정에는 물고기가 놓여있는 연못과 함께 퍼골라도 구성된다.

4.3. 유형의 규칙과 모델

격리된 생활의 주된 공간적 표현은 수도사들의 셀에 집중되어있다. 기본적으로 한 수도사들의 절대공간은 7.8m x 7.8m에 한정되며 각각의 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접하고 있다. 하나의 셀 안에서도 마당공간을 배치함에 있어 남쪽을 배려하고 있으므로 시계방향으로의 반복적 구성은 변이를 이룬다. 낮은 벽을 통해 이루어진 각각의 셀 안에서 이루고 있는 공간

구성은 대 중정 공간과 유형적으로 유사하나 이루어지는 성격은 매우 다르다. 대 중정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개별적인 생활이 포함되며 계획하고 응시하며 침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된다. 작은 정원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서는 비워짐과 재현이 반복되면서 확장된 공간으로 전환된다. 때문에 그 유형은 물리적인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로마 공중 목욕장에서 보여지는 개방성과 확장성이 동시에 표현되며, 보다 더 초기의 유사 유형으로는 로마 도무스(Domus)의 페리스타일(peristyle)과도 연결된다.⁸⁾ 이것은 아마도 지중해성 고대 도시의 기억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방형의 광대한 중정 역시 방대한 농업지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그림 12> 중정공간의 관계도

4.4. 모나드

카르투지오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상징하며 표현하고 있는 중정은 각각의 셀 즉 모나드(monad)⁹⁾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하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명쾌한 구성으로 공간의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오라토리오회¹⁰⁾에서 시작한 초기 수도사들의 거주 방식인 작은 규모의 판자집형 목조방식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후에 작은 교회의 모델로 작용하게 된다. 화덕(fire place)의 위치는 매스의 중앙부에 위

8)Winand Klassen,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1980, San Carlos Publications. pp.51-53

9)모나드는 하나의 단일체로 단위를 의미하며 수도사들의 공간에서는 거주하는 최소한의 개별적 사유공간을 말한다.

10)오라토리오회는 1564년 로마에서 창립된 가톨릭 성직자회로 이 단어는 이중적으로 작은 예배당 혹은 기도소의 의미를 포함한다.

치하면서 외형적으로도 중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부의 모습은 종각의 형태를 띠고, 기발은 금속재로 만들어졌다.¹¹⁾



<그림 13> 모나드 입체 단면도

이것은 공동체의 교우관계를 환기시킴을 드러내면서 단순한 셀이 아닌 완전한 자족적 공간의 유형으로 지닌 상징인 것이다. 대 중정 공간으로부터는 폐쇄적이고 내부적으로는 사적인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¹²⁾ 내부 공간에는 작은 예배당 기능을 공유하는 거실과 침실이 있으며 정원과 마당이 우물과 함께 약식으로 로지아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더하여 물 공급을 위한 세면대와 화장실의 생리적 시설은 별도의 높은 벽과 단 층으로 구분되어 배치되어 있다. 이 매스에는 작은 창과 출구의 크기가 거주자의 움직임과 음식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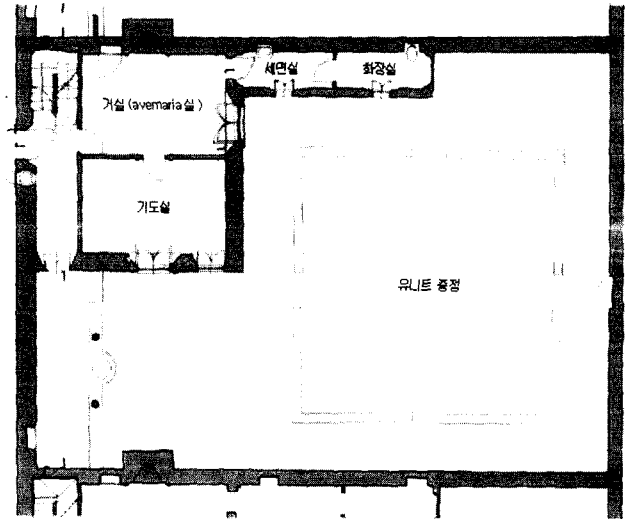
4.5. 셀

스타투티 체르토시니(Statuti Certosini)는 수도원 셀 공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다. ‘누구든지 이 공간에서 살게 되면 그의 모든 생활을 고독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 수도원 체르토사에서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광야에서의 재발견을 모델로 강조하며 베네딕티안에 비해서 보다 명상을 강조하며 규범적인 신비주의를 강조하기도 한다.¹³⁾ 이에 따라 공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장소로 만들게 한다. 주 진입의 좌측 부에는 현관 앞의 객실공간(vestibule)과 계단실의 배치가 대 중정의 포르티코(portico)로부터 보다 격리된 공간을 강조하게 하며 우측 부에는 작은 로지아 공간을 통해 작은 정원으로 유도한다. 1층의 구성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소위 아베마리아의 방이라고 명명하며 화덕이 배치되어 수도사들이 식사와 기도하는 공간으로 세면대와 화장실과도

11) Remo Dorigatti, op. cit., pp.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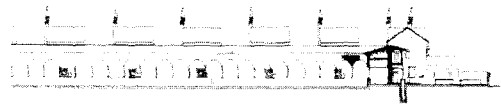
12) Conoscere L'Italia Lombardia III, op. cit., pp.23-24

13) 체르토사의 수도원에서는 학습과 노동의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4> 1층 평면도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주기능으로 일을 하는 공간으로 넓은 창이 형성되어 있다.¹⁴⁾ 2층의 공간은 전체 수도원 공간 중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공간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수도사들은 집중적인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는 작은 정원을 응시하는 동안 고독함을 다스리고 총체적인 종교적



<그림 15> 셀부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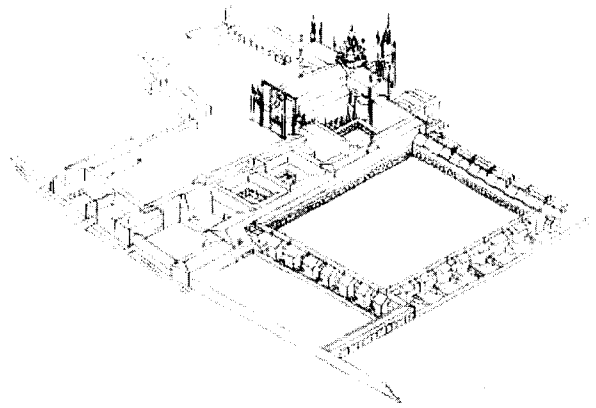
조화로 들어간다. 때문에 이 공간은 수도사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다스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층 다락방에는 난방을 위한 목재 저장소와 음식 및 와인을 저장하는 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중정의 표현 역시 은유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최상의 아름다움은 에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며 흐르는 시간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공간은 자생하는 자연의 씨앗이 발화하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가장 생명력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4.6. 건설 구조의 특징

수도원 각 셀의 공간을 이루는 볼륨의 특징으로는 정육면체

14) Remo Dorigatti, op. cit., pp.26-27

이 큐빅 매스를 중심으로 작은 로지아(loggia)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16세기에 수정된 형식에 따라 복도와 로지아가 반 개방형 간이 벽으로 변형되었다. 1층의 천장은 작은 스케일의 판벽형 카세트이고 2층은 사면 볼트로 지붕이 덮여 있으며 주벽을 이루는 벽돌은 주변 지역에서 채집된 흙을 사용하였다.¹⁵⁾ 본당의 정면을 비롯해 부분적으로 사용한 석재¹⁶⁾는 밀라노 대성당에서 사용한 돌과 같은 지역에서 채집된 것으로 교통용 수로인 나빌리오(Naviglio)¹⁷⁾를 통해 전달되어 건설되었다. 보를 비롯한 각 골조에는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초기 지붕의 재료는 납이었다. 창은 정돈된 침두아치를 사용하였고 문은 갓머리아치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장은 목재 패널형이고 둥근 창은 복도 쪽을 향하고 있다.



<그림 16> 수도원 전경 입체도

5. 공간 구성의 상징 및 의미

공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기도, 독서, 학습, 나누어진 업무, 의무적인 노동, 단순한 식사와 휴식, 이른 아침의 예배, 하루 두 번의 미사와 저녁기도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은 고독함 속에서의 자기와의 만남을 위해 보낸다. 일요일에는 공동체의 생활로 같이 찬송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단 침묵 속에서) 단지 월요일에만 인근의 짧은 산책이 허용된다.

5.1. 자족성

수도원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자족성으로의 셀 공간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셀의 공간배치와 유형은 하나의 작은 스케일의 수도원을 상징한다. 때문에 이곳은 곧 교회이며 중정이고 휴게실이며 기숙사이자 일터이다. 비록 동일한 기능들이 다른 규모와 성격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복되는 공간의 형식을 통해 전체 체르토사의 특징을 만들어 가며, 개인적 공간으로부터 사회적 공간으로까지 이어지는 공간의 형식은 일관된 자족성의 원칙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5.2. 청빈 과 풍요

1136년에 건설된 몽 디우에 있는 체르토사는 각각의 셀은 단지 7m x 7m의 보잘 것 없는 제한된 단층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정원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외형적인 소박함과 청빈함에 비해 공간의 언어를 풍요롭게 발전시키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작은 우주로의 재현이며 격리되어있는 도시로써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대한 갈망인 것이다. 때문에 이 건축 공간에서 드러나는 예술적 가치는 주 교회의 공간에서 이기보다는 셀 공간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5.3. 질서와 영원성

강력한 방향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도원 공간유형의 기본적인 의미는 수도사들과의 교우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성이며 이것은 금언적 요소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 질서는 결코 수정된 적이 없으며 저버리거나 누설된 적도 없는 절대적인 상징인 것이다. 다른 질서와 비교하여도 카르투지안들의 명상적이고 관조적인 질서개념은 보다 엄격하며 전통적으로도 그 성격의 지속성이 강하다. 장소, 의상, 재원, 그리고 정치적인 간섭과 기술적인 구조 등이 그들의 언어와 복합적인 규칙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수도사들의 순수한 특성들이 다행스럽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소 형식주의적이고 공동체적 특징이어도 각 참여자들은 동일한 가족개념을 그들의 거주 유형을 통해서 지켜나간다.

6. 결론

르네상스 수도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수도원 체르토사는 수도회의 특징적인 요소를 반영한 그 공간의 유형인 중정과 아케이드, 모나드와 셀을 통해 공간의 형식과 유형의 의미가 하나의 기호로 작용하고 있

15)Ibid., pp.42-43

16)이 곳에 사용된 석재의 이름은 Serizzo, Candoglia, Montorfano 등이다.

17)나빌리오(Naviglio)는 내륙 도시인 밀라노의 주 교통수단으로 도심지 내의 환상형 수로와 연결된다. 이것은 후에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도심 중심부의 환상형 수로는 복개되어 현재의 제일 순환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로부터 외부로 연결되어있는 수로는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다. 중정은 대중정과 소중정으로 두 개의 공간이 구분되며 그 부속실과 연결된 소통을 통해 그 공간적인 성격을 구분 짓고 있으며 각각의 유니트와 셸로 이어진다. 또한 아케이드와 열주는 전체공간을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며 유형은 물리적인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높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개방과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모나드와 셸에서는 수도사들의 일상적 삶의 특징들이 정리되어 합리적인 공간의 구조가 결정되었으며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건들은 필요 이상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풍요로움을 표현해주는 절제와 검소함의 기준이 된다. 특히 카르투지오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자족성, 청빈함과 풍요, 그리고 질서와 영원성을 공간의 구성과 배치 속에 표현하고 있다. 특히 수도원의 각 셸은 하나가 전체를 또 전체가 하나를 상징하며 강한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각각의 모듈과 스케일은 은자로서의 수도자들에게 완벽함을 전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이며 동시에 영원을 표방하는 우주이다.

참고문헌

1. Wolfgang Braunfels, *Monasteries of Western Europe*, 1972,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Dora P. Grouch, *History of Architecture*, 1985, McGraw-Hill Book Company
3. Remo Dorigatti, *Certosa di Pavia*, 1995 Segep Editrice, Genova
4. *Conoscere L'Italia Lombardia III*, 1990, Istituto Geografico De Agostini
5. Lucio Gambi e Mania Cuistina Gozzoli, *Le citta nella storia d'Italia* Milano, 1989, Editori Laterza
6. John Fitzhugh Millar, *Classical Architecture in Renaissance Europe 1419~1585*, 1987, Thirteen Colonies Press
7. Pepi Merisio, Carlo Bo, *Piazze D'Italia*, 1982 Silvana Editoriale
8. Winand Klassen,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1980*, San Carlos Publications
9. Colin Rowe, *Dominican Monastery of La Tourette*, 1991 Rizzoli

<접수 : 2002. 8. 29>